

# 광주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한다

지역 가전·뿌리산업 기업 대상 컨설팅·기술이전·마케팅 지원 4일 광주테크노파크서 설명회 5개 사업 설명·상담부스 운영

광주시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가전과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

리창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4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연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경제자총협회·지역고용정책연구원 등 5개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주

지원은 △가전내일 전환 지원(기업 기초진단·컨설팅, 맞춤 지원) △내일기술고도화 지원(기술이전 비용지원 및 사업화 코칭) △가전 내일 마케팅 지원(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내일전환 지원센터(취업연계서비스, 기업홍보)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뿌리기업 지원) 등 5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별 사업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사업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지원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도약패키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보증공급 등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 지원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각 수행기관에서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신장호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통합 설명회는 지역 가전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뿌리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관련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맞춤형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민형배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 유치"

민형배(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으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를 내걸었다. 민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AI 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관련 기관의 광주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동농 복수 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 추진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및 광주발전을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민 후보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핵심적 중·장기과제인데 검찰독재 무능에 의해 퇴보되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자치분권을 다시 국정의 중심과제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발표 공약 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중소기업인 지원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먹거리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특별법 등 근거법 제정으로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은지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 시·군 시상.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일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우수 시·군(대상 광양시, 최우수상 순천시, 우수상 진도군·신안군)에 친환경농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이낙연 "문재인, 범야권 응원... 함께 윤 정부 심판"

이낙연(사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함께 새로운미래가 무지·무능·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님이 어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셨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님은 소속인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선전을 응원하셨다"며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미래를 응원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라며 "시민들은 과일이 비싸 사 먹지 못하고 아파도 의사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신당이 더 잘 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들이 대표인 당들로는 검찰 정권을 심판할 수도,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전남도, 국제자동차경주장 지역민에 개방

임대 없는 기간 무료 개방 10월까지...공익목적 행사

전남도는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인 국제자동차경주장을 4월부터 10월까지 임대 없는 기간에 지역민에게 무료 개방,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전남GT(Grand Touring) 등 모터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신차 개발 및 타이어 테스트, 기업행사, 스포츠 주행 등 연간 250일 활용하는 전문 체육 시설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

회(사이클)를 비롯해 마라톤, 듀애슬론 등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5.6km의 폴코스(F1트랙)를 주말에 임대할 경우, 1일 기준 일반임대 2000만원, 대회 임대 4000만원 등으로 사용료가 고가여서 일반인 사용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전남도는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10월까지 대회 및 임대 없는 기간을 활용해 무료 개방키로 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누리집(https://www.koreacircuit.kr)에서 신청 및 일

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공익목적 행사에 한정해 서킷 사용료는 무료다. 다만 청소비, 행사 운영비 등 실비는 신청기관·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비어 있는 일정을 활용한 개방인 만큼 임대가 가능한 코스(트랙) 및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보험 가입, 청소 및 시설복구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영업행위 등 상업적 활동을 하면 즉시 행사를 취소토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권범 기자

## 강은미 "광주기후동맹과 기후정책 추진 협약"

강은미(사진)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후보는 지난 1일 광주기후동맹과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광훈 광주기후동맹 공동대표, 신석기 운영위원, 황예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훈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를 만들어가는데 22대 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바란다"며 "강 후보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후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후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 이행을 위해 '과감한 예산편성과 법제도 보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구

체적인 의정활동', '기후위기대응 전문가 보좌관 채용', '기후정치 세력 연대' 등의 내용으로 정책 협약을 맺었다. 강은미 후보는 "협약 정책들은 녹색정의당의 기후를 살리는 5대 약속과 함께 우선 공약으로 이행하겠다"며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기후위기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광주시, 물가안정 앞장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광주시는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일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 착한가격업소에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또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와 함께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

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실사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노병하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재판 거부" 단식 돌입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출마한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아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마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그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 전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4월 5~6일)과 본선거일(4월 10일)에도 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

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은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달 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혜 기자